

# 주제별 특성화서비스 및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현장사서의 의견 조사 연구

## An Investigation on the Opinion of the Librarian concerning the Subject-Specialized Service and Librarianship

노 영 희(Younghee Noh)\*

오 의 경(Euikyung Oh)\*\*

심 효 정(Hyojung Sim)\*\*\*

### 〈목 차〉

I. 서론	1. 일반응답자의 특성
II. 선행연구	2. 주제별 특성화서비스와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현황 및 의견조사 결과
III. 연구설계 및 방법론	3. 주제전문사서 자격 제도화 및 주제전문사서 양성에 관한 의견
1. 연구문제	V. 결론 및 제언
2. 표집방법 및 데이터 수집절차	
IV. 설문사 분석 결과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장의 사서들을 대상으로 도서관특성화 및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서관특성화 서비스를 담당해야 할 사서들의 업무 현황과 환경을 이해하는데 있다.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조사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전국의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사서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392명의 사서가 설문에 응답하였다. 주요 결과로는 특성화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특성화서비스 수행 시 가장 어려운 점은 주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며, 특성화 서비스를 위한 도서관의 환경도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특성화서비스는 주제전문사서가 주도해야 하며,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자격기준은 필요하며 자격제도는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고 하였다.

키워드: 도서관특성화, 사서, 주제전문사서, 주제전문서비스, 주제전문사서자격제도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ield librarians' opinions of the library specialization and specialized librarian and understand the librarians' working conditions and environment. Questionnaire were developed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and surveys were conducted with the librarians of public libraries, university libraries, and professional librarians across the nation. A total of 392 librarians have responded to the survey. As for the main result, the users' satisfaction with the specialization service was perceived to be high, and the most difficult matter in performing the specialization service is the lack of knowledge on the subject matter, and the library environment for the specialization service is not enough. The specialization service should be led by the theme specialized librarians, and the qualification criteria for the theme specialized librarians are required, and the qualification systems should be managed by the state.

Keywords: Library specialization, Librarians, Subject-specialized librarian, Subject-specialized service, Subject librarian certification system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rs4u@kku.ac.kr) (제 1저자)

\*\* 상명대학교 인문콘텐츠학부 문헌정보학전공 교수(ohui@smu.ac.kr) (교신저자)

\*\*\* 한국도서관협회 총괄차장(shjcap@kla.kr) (공동저자)

•논문접수: 2017년 11월 19일 •최초심사: 2017년 11월 25일 •게재확정: 2017년 12월 19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4), 321-350, 2017. [http://dx.doi.org/10.16981/kliss.48.201712.321]

## I. 서론

정보통신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일련의 사회적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지식정보사회는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에 따라 일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 정보 또한 한층 전문화되고 복잡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보편적인 수준의 정보서비스로는 이러한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워지므로 서비스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주제 특성화서비스<sup>1)</sup>는 전통적으로 대학도서관과 전문도서관에서 학술 및 연구 지원을 목적으로 제공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일반 이용자의 전문화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도서관에서도 제공해야 할 서비스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도서관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이용자의 전문성 있는 정보요구에 부응하도록 각 도서관이 자율적으로 경쟁 우위의 특성화 주제를 선정하여 집중 서비스하는 특성화도서관 지원 사업을 개시하였고 앞으로 사업의 영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처럼 특성화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충분하고 국가적 지원 사업이 재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담당자인 주제전문사서 양성과 배치에 여전히 난제로 남아있다. 전문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의 경우, 주제를 중심으로 정보서비스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제전문사서의 업무나 역할에 대한 이해도도 높은 편이고 서비스의 체계도 일정 수준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교육시스템을 통하여 주제전문사서가 양성되지 못하고 있을 지라도 업무의 과정 중에 주제전문사서의 역량을 갖출 기회와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은 구체화되는 이용자의 전문 정보 요구에 대응할 인력이나 서비스의 준비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주제전문성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는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하면서 부전공제도, 복수전공제도, 다전공제도 등의 학사제도를 활용하여 특정 주제의 지식을 획득하여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추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나 개인마다 학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르며 학사제도를 잘 활용한다 하여도 학부 수준의 지식으로 주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 대학원에 진학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함으로써 전문성을 발현시킬 수 있지만,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학위 취득 후의 잇점이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는 한 매력적이지 않다. 취업 후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갖출 가능성도 있지만, 이 방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문도서관과 대학도서관에서는 가능하나 공공도서관에서의 성취 가능성은 낮다.

1) 주제 특성화서비스는 보편적으로 주제전문서비스라 일컫는 도서관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단, 이 연구에서는 도서관의 특성화사업에 대한 측면도 논의하고 있어 특성화서비스로 용어를 통일하였다.

주제전문사서의 양성과 자격제도의 도입은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로 이미 다수의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져 왔고, 도서관계에서도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도화는 단기간에 달성되는 사안이 아니므로 현실적으로 특성화 서비스의 담당은 현재의 현장 사서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현장 사서들의 직장 내 담당 업무와 개인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화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현장의 어려움과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실질적인 특성화서비스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리뷰하고, 리뷰 결과들을 토대로 설문을 작성하여 현장사서를 대상으로 주제전문사서의 필요성,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서관의 특성화서비스에 대한 의견, 특성화 요구 분야, 특성화 서비스와 주제사서에 대한 보완점 및 개선점 그리고 요구사항, 주제사서의 역량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 II. 선행연구

본 장에서는 주제전문사서에 관한 연구들을 조사하였다. 연구들은 주로 주제전문사서의 역할에 관한 연구와 주제전문사서 자격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주제전문사서의 역할에 대한 연구들은 한상완(1986)의 연구, White(1999)의 연구, Pinfield(2001)의 연구, Biddlscoble(2002)의 연구, Graham과 McAbee(2005)의 연구 그리고 Feldmann(2006)의 연구 등에서 논의되어 왔다. 주로 주제전문사서가 담당해야 할 업무들을 추출해 낸 연구들이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초기의 연구 중 하나인 한상완(1986)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주제전문사서가 담당해야 할 업무를 주제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 특정 주제별 정보서비스, 균형잡힌 장서구성으로 보았다. White(1999)는 1990년대 미국 대학도서관 경영, 사회과학, 자연과학 분야의 주제전문사서 구인 광고 분석을 통하여 주제전문사서의 역할을 정보서비스, 장서개발, 이용자 및 서지 교육, 리에중, 데이터베이스 검색 순으로 5개 분야로 제시하였다. Pinfield(2001)는 도서관 장서에 대한 홍보, 이용자의 참고질의에 새로운 방법으로 응답하는 것, 기술부서 직원과 함께 일하고 전자자원을 선정하는 것, 더 많은 정보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주제계이트웨이 구축 등과 같이 정보를 조직하고, 교육 및 학습 환경에 참여하고, 팀별 업무 활동과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것을 강조했다. Biddlscoble(2002)는 학습지원전문가로서의 주제전문사서의 역할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IT 발달과 더불어 발전하는 다양한 교육매체 및 방대한 교육매체 사용법을 비롯하여 교수법, IT 능력, 가상교육환경에 대한 이해가

####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8권 제4호)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Graham과 McAbee(2005)는 직무분석을 통해 주요 책무를 도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들은 미국 중간 규모 대학도서관 21개의 주제전문사서 13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15개의 책무를 추출하였는데, 주요 직무는 참고데스크에서의 정보서비스, 도서관 이용교육, 주제 분야 정보서비스, 주제 분야 장서개발, 담당학과 교수와 리에중 역할 순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Feldmann(2006)은 참고서비스, 장서개발, 리에중, 교육 및 디지털 프로젝트 참여를 제안하였다.

주제전문사서의 자격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문헌정보학계의 꾸준한 이슈로 많은 연구와 논의가 있었다. 정보환경이 변화발전하면서 이용자의 정보요구는 다양화·전문화되고 있으며 이용자의 정보 이용 능력과 정보 선별 능력 또한 이전보다 크게 향상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도서관의 정보서비스는 더욱 섬세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지만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현장의 주제전문사서 제도는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 주제전문사서의 자격에 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이 유형화 하여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일정한 자격 요건을 설정하고 자격을 갖춘 후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주장한 연구이다. 윤영대(2003)은 한국의학도서관협회 의학사서자격관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의학전문사서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였고, 실제로 한국의학도서관협회는 의학사서 자격을 위한 인정 조건을 제시하고 이에 60점 이상 취득한 경우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곽승진 외(2015)는 정책정보사서의 경우 정책정보전문사서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자격증 부여하도록 하고, 정책정보 전문 도서관인 국립세종도서관 직원으로 채용 시 가산점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주제전문사서의 자격으로는 문헌정보학과 해당 주제의 학위를 모두 갖추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의 연구이다. 한상완(1986)연구와 윤영대(2003)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학위와 다른 주제 분야 학위 모두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고, 이용재(1998)는 문헌정보학 학사 학위 이상, 도서관 근무경력 3년 이상, 그리고 주제서비스 적성 등 세 가지 요건이 충족한 상태에서 다른 주제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을 제안하였다.

셋째, 심원식(2009)연구와 정재영(2007)연구에서는 주제전문사서 자격에 대한 표준화, 외부 인증, 외부 기관과의 협력 필요성을 논하였다. 주제전문사서를 양성 업무를 전담할 전담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사서자격제도화 관련 의견을 종합하면, 제도화는 당면한 과제로 여기고 있으며, 자격의 인정은 자격증의 발급으로 구체화되어야 하고, 자격으로는 주제 분야 학위 취득이 바람직하며, 주제전문사서 자격의 표준화와 외부인증(외부기관협력)과 같은 정책도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 Ⅲ. 연구설계 및 방법론

####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주제별 특성화서비스 및 주제전문사서의 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주제별 특성화서비스 및 주제전문사서의 필요성, 배치, 교육, 제도화 등에 대하여 사서들은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셋째, 재직 중인 도서관의 관중에 따라 사서들은 특성화서비스 및 주제전문사서의 필요성, 배치, 교육, 제도화 등에 대하여 다른 의견과 입장을 보이는가?

#### 2. 표집 방법 및 데이터 수집절차

본 연구에서는 주제전문사서의 주제 특성화서비스 및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의 현장사서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공공도서관 250명(60%), 대학도서관 100명(30%), 전문도서관 50명(10%)으로 총 400여 명을 목표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관중별 설문 대상은 계통표집하였다. 설문기간은 6월 12일부터 6월 31일까지 이루어졌으며, 공공도서관 사서 250명, 대학도서관 사서 100명, 전문도서관 사서 42명 총 392명의 사서가 응답하였다. 관중별 설문 회수 현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관중별 설문 회수 현황

조사 영역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계
N	250	100	42	392
%	63.78	25.51	10.71	100.00

#### 3. 설문 내용 및 문항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의 문항은 응답자의 개인적인 배경에 관한 사항, 특성화서비스 및 주제전문사서 관련 문항, 주제전문사서 자격, 수급 방법 및 채용 관련 문항의 3개 영역에서 모두 36개 항목의 설문을 작성하여 사용하였다. 자세한 설문 내용 및 문항 구성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8권 제4호)

<표 2> 설문 내용 및 문항 구성

영역	세부 설문 내용	문항수
일반사항	① 성별 ② 연령 ③ 최종학력 ④ 도서관 관종 ⑤ 재직하고 있는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 ⑥ 직급 ⑦ 수행중인 업무 ⑧ 현재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 ⑨ 도서관에서 근무한 기간	9
특성화 서비스 및 주제전문사서 관련	① 특성화서비스 제공 여부 ② 제공하고 있는 특성화서비스 주제 ③ 제공하고 있는 특성화서비스 프로그램 ④ 주제전문사서 배치 여부 ⑤ 특성화서비스 홍보 방법 ⑥ 특성화서비스 제공 시 어려운 점 ⑦ 공공도서관 특성화서비스 제공 필요성 ⑧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특성화 주제 ⑨ 공공도서관 특성화서비스 불필요 이유 ⑩ 공공도서관의 주제전문사서 배치 필요성 ⑪ 공공도서관의 주제전문사서 배치 불필요 이유 ⑫ 적합한 특성화서비스 담당 인력 ⑬ 특성화서비스 담당 의사 ⑭ 특성화서비스 담당 의사가 없는 이유	14
주제전문사서 자격, 수급 방법 관련	① 주제전문사서 자격제도 및 자격요건의 필요성 ② 주제전문사서 자격제도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 ③ 주제전문사서로 인정 가능한 도서관 근무 경력 ④ 주제전문사서로 인정 가능한 주제전문사서 경력 정도 ⑤ 주제전문사서의 적합한 학력 수준 ⑥ 현직 사서의 주제전문사서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 ⑦ 주제전문사서 자격을 갖추기 위한 추가적인 활동 수행의사 ⑧ 주제전문사서 자격 관리 방식 ⑨ 주제전문사서 역량 구비를 위한 대학 및 대학원의 교육방식 ⑩ 주제전문사서에게 필요한 역량 ⑪ 주제전문사서 역량 구비 정도 ⑫ 주제전문사서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내용 ⑬ 특성화서비스 및 주제전문사서를 위한 가이드라인, 정책서, 법적 제도화 의 필요성	13
총 문항 수		36

## IV. 설문 조사 분석 결과

### 1.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설문에 응답한 392명의 사서는 성별에 있어서 남자 87명(22.19%), 여자 305명(77.81%)으로 구성되어 여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30~34세'가 27.3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5~39세' 16.58%, '25~29세' 16.07%, '45~49세' 12.50%의 순이었다. 최종학력은 '4년제 학사과정 졸업'이 73.98%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석사과정 졸업' 15.56%, '석사과정 수료 5.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재직 도서관 관종별 분석에서는 '공공도서관' 63.78%, '대학도서관' 25.51%, '전문도서관' 10.7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직하고 있는 도서관의 지역별 분석에서는 '서울

특별시'가 30.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경기도' 16.58%, '대구광역시' 13.78%, '경상남도' 6.38%, '경상북도' 5.61%의 순이었다.

설문에 응답한 사서의 직급을 살펴보면 '직원(사서)'가 85.71%로 가장 많았으며, '부장', '과장', '팀장' 등의 부서장이 10.97%로 나타났다. 기타 직급으로 '야간사서', '파견 직원', '조교', '5급 공무원', '기관제 근로자', '평생교육 6급' 등으로 다양하였다.

응답한 사서들이 현재 직장에서 수행했거나 수행중인 업무를 분석한 결과, '열람 및 대출'이 12.37%로 가장 높은 업무로 나타났으며, '참고봉사' 10.48%, '수서' 10.38%, '문화프로그램' 10.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웹마스터' 0.25%, '정보유통' 0.40%, '연구' 0.45%로 낮았으며, 기타 업무로 '도서관 통계', '도서관 평가', '도서관 발전계획', '상호대차', '연속간행물관리', '전자DB관리', '학교도서관 지원',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어서 사서의 업무 영역은 매우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재직 도서관에서의 근무기간은 '1년 이상 ~ 4년 미만'이 31.12%로 가장 많았으며, '10년 이상' 28.57%, '1년 미만' 16.84% 순이었다. 현재 직장과 이전 직장 근무기간을 모두 포함한 근무기간에 대해 분석한 결과, '5년 미만'이 3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년 이상~10년 미만' 23.98%, '20년 이상' 17.35%, '10년 이상~15년 미만' 13.78% 이었다.

## 2. 주제별 특성화서비스와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현황 및 의견조사 결과

### 가. 특성화서비스 제공 여부와 제공하는 주제

응답자가 재직하고 있는 도서관의 26.53%가 특성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73.47%는 제공하지 않고 있어 특성화서비스 제공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응답자가 재직하고 있는 도서관의 관종별로 특성화서비스 제공 여부를 조사하면 <표 3>과 같다.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은 특성화서비스 제공 비율이 각각 21.20%, 26.00%에 불과하였고, 전문도서관은 59.52%로 나타났다. 전문도서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도서관의 성격에 따라 예상한 가능한 것으로, 주제 전문적인 서비스가 도서관서비스의 기반이 된다고 볼 때 오히려 59.52%의 제공 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표 3> 관종별 주제별 특성화서비스 제공 비율

항목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총계	
	N	%	N	%	N	%	N	%
예	53	21.20	26	26.00	25	59.52	104	26.53
아니오	197	78.80	74	74.00	17	40.48	288	73.47
전체	250	100.00	100	100.00	42	100.00	392	100.00

나. 특성화서비스의 주제

특성화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응답한 사서들에게 재직 도서관에서 서비스의 주제가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표 4>와 같이 ‘기타’를 제외하고 ‘과학’이 15.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학’ 11.98%, ‘역사’ 10.42%, ‘예술’ 9.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법학 및 법률 분야’에 대한 주제가 높게 나타났으며, ‘죽보’, ‘인문학’, ‘의학’, ‘정치’, ‘행정’, ‘농업’,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과학’의 비율이 높은 것은 응답자의 소속 도서관 중에는 과학주제의 전문도서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문학’, ‘역사’, ‘예술’의 주제는 공공도서관에서 프로그램과 대출이 많이 되는 주요 주제로 대중성과 보편성을 갖춘 주제영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주제적 특성이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표 4> 특성화서비스의 주제 (복수응답)

항목	N	%
역사	20	10.42
예술	19	9.90
문학	23	11.98
건강	17	8.85
과학	29	15.10
환경	18	9.38
종교	7	3.65
복지	9	4.69
여행(관광)	5	2.60
기타	45	23.44
전체	192	100.00

다. 특성화서비스 프로그램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특성화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에서는 <표 5>와 같이 ‘강연회’가 22.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시회’ 19.50%, ‘유관기관 협력 프로그램’ 17.50%, ‘기타’ 13.00%, ‘체험활동’ 12.50% 으로 나타났다. 기타 ‘독서문화프로그램’, ‘연구

<표 5> 제공하고 있는 특성화서비스 프로그램 (복수응답)

항목	N	%
전시회	39	19.50
강연회	45	22.50
연주회	8	4.00
사람책	10	5.00
북콘서트	12	6.00
체험활동	25	12.50
유관기관 협력 프로그램	35	17.50
기타	26	13.00
전체	200	100.00



지원’, ‘창작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였다. 특정한 유형의 서비스에 의존한다기 보다는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주제별 특성화서비스 전담사서(주제전문사서) 배치 현황

주제별 특성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 중 전담사서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전담사서가 있는 도서관이 50.96%, 그렇지 않은 도서관이 49.04%로 특성화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지만 절반 정도는 전담 사서 없이 수행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관종별 분석에서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 28.30%, 대학도서관 80.77%, 전문도서관 68.00%가 전담 사서가 배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통적인 학술 서비스에서 주제전문서비스를 수행해 온 대학도서관이나 도서관의 존재 자체가 전문서비스에 있는 전문도서관에서 전담 사서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생각되지만, 상대적으로 공공도서관의 상황은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다.

<표 6> 관종별 주제별 특성화서비스 전담사서(주제전문사서) 배치 현황

항목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총계	
	N	%	N	%	N	%	N	%
예	15	28.30	21	80.77	17	68.00	53	50.96
아니오	38	71.70	5	19.23	8	32.00	51	49.04
전체	53	100.00	26	100.00	25	100.00	104	100.00

결측값: 288

마. 특성화서비스 홍보방법

특성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의 홍보방법은 <표 7>과 같다. ‘도서관 홈페이지 게시’ 32.27%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도서관 내부 게시판 활용’ 28.29%, ‘서비스 안내책자 배포’ 14.34%, ‘SNS 활용’ 13.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홍보방법으로는 ‘메일링 서비스’, ‘팩트북 발간 및 배포’, ‘타 프로그램 및 교육 중 홍보’ 등을 통해 홍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특성화서비스 홍보방법 (복수응답)

항목	N	%
도서관 홈페이지 게시	81	32.27
도서관 내부 게시판 활용	71	28.29
서비스 안내책자 배포	36	14.34
지역 소식지, 지역 커뮤니티 게시	13	5.18
SNS 활용	33	13.15
홍보하고 있지 않음	5	1.99
기타	12	4.78
전체	251	100.00

바. 특성화서비스 제공 시 어려운 점

주제별 특성화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점을 조사하는 문항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주제전문지식의 부족’(25.28%)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 하였으며, 다음으로 ‘인력부족’ 24.91%, ‘이용자의 인지도 미약’ 16.60%, ‘예산부족’ 14.72%, ‘공간부족’ 10.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 ‘주제전문사서를 채용해놓고 해당 업무에 배치하지 않는 점’, ‘모든 서비스를 사서에게 의존하는 점’등에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사. 공공도서관 특성화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공공도서관 주제별 특성화서비스 제공의 필요성(‘필요없다’는 의견과 ‘할 수 없다’는 의견 모두 포함)에 대하여,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38.27%, ‘반드시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61.73%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의 사서들이 공공도서관의 주제별 특성화서비스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관종별 분석에서도 <표 8>과 같이 공공도서관 응답자의 62.20%, 대학도서관의 응답자 63.00%, 전문도서관의 응답자 61.90%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재직기관의 관중에 관계없이 사서들은 공공도서관에서의 주제별 특성화서비스 제공에 회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8> 관종별 공공도서관의 주제 특성화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항목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총계	
	N	%	N	%	N	%	N	%
예	97	38.80	37	37.00	16	38.10	150	38.27
아니오	153	61.20	63	63.00	26	61.90	242	61.73
전체	250	100.00	100	100.00	42	100.00	392	100.00

아. 공공도서관에서 주제별 특성화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

공공도서관의 주제별 특성화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책, 장서, 시설, 공간 등 주제별 특성화서비스를 위한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가 41.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용자의 주제별 특성화서비스 요구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9.51%, ‘현재의 문헌정보학 교육으로는 주제별 특성화서비스를 담당할 사서를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가 23.90%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공공도서관의 특성상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과 공공도서관 보다는 대학도서관이나 전문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공공도서관 특성화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이유는 환경 여건의 불충분이라는 현실 여건과 공공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과 철학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9〉 공공도서관이 주제별 특성화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복수응답)

항목	N	%
정책, 장서, 시설, 공간 등 주제별 특성화서비스를 위한 여건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169	41.22
이용자의 주제별 특성화서비스 요구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21	29.51
현재의 문헌정보학 교육으로는 주제별 특성화서비스를 담당할 사서를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98	23.90
기타	22	5.37
전체	410	100.00

자. 공공도서관 주제별 특성화서비스로 유용할 주제

공공도서관에서 주제별 특성화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해야 된다고 응답한 사서를 대상으로 주제별 특성화서비스 제공 시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주제에 대해 분석한 결과, ‘역사’ 17.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학’ 14.49%, ‘예술’ 13.30%, ‘건강’ 13.06%, ‘여행(관광)’ 12.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주제로는 ‘법학’, ‘농업’, ‘교육’, ‘지역정보’, ‘지역 특성관련 주제’, ‘의학’, ‘철학’, ‘외국어’ 등이 있었다.

차. 공공도서관의 특성화서비스 전담사서(주제전문사서) 배치 필요성

공공도서관이 주제별 특성화서비스를 전담할 전문사서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배치해야 한다’가 39.54%,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가 60.46%로 반드시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관중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주제별 특성화서비스를 전담할 주제전문사서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표 10〉과 같이 공공도서관 재직 응답자는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42.40%,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57.60%로 나타났으며, 대학도서관 재직 응답자는 ‘배치해야 한다’ 36.00%,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64.00%, 전문도서관 재직 응답자는 ‘배치해야 한다’ 30.95%,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69.05%로 나타났다. 관중에 관계없이 공공도서관이 반드시 주제별 특성화서비스를 전담할 전문사서를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관중별 공공도서관의 주제전문사서 배치 필요성

항목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총계	
	N	%	N	%	N	%	N	%
예	106	42.40	36	36.00	13	30.95	155	39.54
아니오	144	57.60	64	64.00	29	69.05	237	60.46
전체	250	100.00	100	100.00	42	100.00	392	100.00

카. 공공도서관의 특성화서비스 전담사서 배치가 불필요한 이유

전담 사서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용자의 주제별 특성화서비스 요구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가 34.64%로 가장 많았으며, ‘현

재 도서관의 여건 상 주제전문사서를 배치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가 34.40%, '주제전문사서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를 도서관의 다른 서비스에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가 20.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 '기본적인 서비스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특성화서비스가 잘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기본적인 서비스도 부족한 실태, 일정요건만 갖춘 서류상 인력이 그 자리매김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전문성이 보장되거나 검증할 객관적 평가 없이는 또 다른 비정규일자리 창출 예상된다', '공공도서관 보다는 대학도서관 및 전문도서관에 배치해야 한다', '체계적 교육을 받지 않은 인원이 배치될 경우 오히려 사서의 전문성이 저하된다', '대학 교육과정에서부터 주제전문사서 양성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주제 특성화서비스의 제공 필요성에 대한 회의적 입장과 유사한 응답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용자, 사서, 도서관의 환경 모두 성숙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1> 공공도서관의 특성화서비스 전담사서 배치가 불필요한 이유 (복수응답)

항목	N	%
이용자의 주제별 특성화서비스(주제전문서비스) 요구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41	34.64
현재 사서인력이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32	7.86
주제전문사서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를 도서관의 다른 서비스에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84	20.64
현재 도서관의 여건 상 주제전문사서를 배치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140	34.40
기타	10	2.46
전체	407	100.00

#### 다. 공공도서관의 주제별 특성화서비스에 적합한 인력

공공도서관에 주제전문사서를 배치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서를 대상으로 주제별 특성화서비스를 누가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사서'가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52.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제관련 전문가' 40.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 '사서와 주제관련 전문가의 협업', '주제분야를 전공한 사서' 등이 있었다. 관종별 분석에서는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의 경우 '사서' 54.80%, 다음으로 '주제 관련 전문가' 40.40%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도서관은 '사서'

<표 12> 관종별 주제별 특성화서비스에 적합한 인력

항목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총계	
	N	%	N	%	N	%	N	%
사서	57	54.8	17	48.6	5	38.5	79	52.0
주제 관련 전문가(주제분야 전공자)	42	40.4	15	42.9	6	46.2	63	41.4
프로그램 진행 전문가	1	1.0	1	2.9	0	0	2	1.3
누구나 가능하다	2	1.9	2	5.7	0	0	4	2.6
기타	2	1.9	0	0	2	15.4	4	2.6
전체	104	100.00	35	100.00	13	100.00	152	100.00

48.60%, ‘주제 관련 전문가’ 42.90% 등의 순으로, 전문도서관은 ‘주제 관련 전문가’ 36.20%, ‘사서’ 3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도서관의 응답자만 ‘주제 관련 전문가’가 더 적합하다고 하였다.

파. 특성화서비스를 담당할 의사

향후 주제별 특성화서비스의 업무를 담당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담당할 의사가 있는 경우가 65.31%, 그렇지 않은 경우가 34.69%로 나타났다. 관종별 분석에서는 공공도서관 응답자의 60.80%, 대학도서관 응답자의 67.00%, 전문도서관 응답자의 88.10%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고, 전문도서관이 다른 관종에 비하여 높은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보여주었다.

<표 13> 관종에 따른 주제별 특성화서비스 업무 담당 의사 여부

항목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총계	
	N	%	N	%	N	%	N	%
예	152	60.80	67	67.00	37	88.10	256	65.31
아니오	98	39.20	33	33.00	5	11.90	136	34.69
전체	250	100.00	100	100.00	42	100.00	392	100.00

하. 특성화서비스를 담당할 의사가 없는 이유

이어서 주제별 특성화서비스를 담당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사서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분석하였다.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제별 특성화서비스를 담당할 정도로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가 80.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주제 전문서비스 지식이 부족하다’, ‘업무과다로 지식을 갖추는 데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었다. 관종별 분석에서는 ‘주제별 특성화서비스를 담당할 정도로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

<표 14> 관종별 특성화서비스를 담당 의사가 없는 이유

항목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총계	
	N	%	N	%	N	%	N	%
주제별 특성화서비스(주제전문서비스)를 담당할 정도로 충분한 준비(주제배경 지식 구비 등)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82	83.67	24	72.73	3	60.00	109	80.15
기타	9	9.18	2	6.06	0	0.00	11	8.09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자 하는 의욕이 더 크기 때문이다.	6	6.12	4	12.12	2	40.00	12	8.82
주제별 특성화서비스(주제전문서비스)의 내용과 업무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1	1.02	3	9.09	0	0.00	4	2.94
전체	98	100.00	33	100.00	5	100.00	136	100.00

결측값: 136

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의견이 공공도서관 83.67%, 대학도서관 72.73%로 높게 나타났고, 전문도서관은 40% 수준으로, 전문도서관은 다른 관중에 비해 전문성에 대한 준비자세가 좋다고 할 수 있다.

### 3. 주제전문사서 자격 제도화 및 주제전문사서 양성에 관한 의견

주제전문사서의 자격과 양성에 관한 문항은 총 12문항이며, 세부 항목으로는 주제전문사서의 자격요건의 필요 여부, 주제전문사서로 인정할 수 있는 도서관 경력 및 해당 근무 경력, 주제전문사서의 학력 수준, 주제전문사서 자격 관리 방식, 주제전문사서에게 필요한 역량 등이다.

#### 가. 주제전문사서 자격제도 및 자격요건의 필요성

주제전문사서의 자격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표 15>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필요하다는 응답이 86.99%,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13.01%로, 대부분의 사서들은 주제전문사서의 자격제도 및 자격요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관중별 분석에서는 공공도서관 응답자의 86.80%, 대학도서관 응답자의 86.00%, 전문도서관 응답자의 90.48%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여 관중에 관계없이 주제전문사서의 자격제도 및 자격요건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표 15> 관중별 주제전문사서 자격제도 및 자격요건의 필요성

항목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총계	
	N	%	N	%	N	%	N	%
예	217	86.80	86	86.00	38	90.48	341	86.99
아니오	33	13.20	14	14.00	4	9.52	51	13.01
전체	250	100.00	100	100.00	42	100.00	392	100.00

#### 나. 주제전문사서의 자격제도 및 자격요건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주제전문사서의 자격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서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분석하였다.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제전문성은 취업 후 현장에서 경험과 재교육으로 성숙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의견이 41.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의 구직 조건이 주제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는 의견이 31.67%, '정사서 2급 자격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의 의견이 20.00%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 '주제전문사서 양성이 필요하나 국내 여건상 사서의 처우도 개선되기 어려운 실정이고 취업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고학력자 양성만 유도될 것 같다'는 의견과 '도서관 특성상 부서 이동근무로 주제전문사서의 전문성을 살리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16〉 주제전문사서의 자격제도나 자격요건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복수응답)

항목	N	%
주제전문성은 취업 후 현장에서 경험과 재교육으로 성숙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25	41.67
현재의 구직 조건이 주제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19	31.67
정사서 2급 자격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12	20.00
기타	4	6.67
전체	60	100.00

다. 주제전문사서로 인정 가능한 도서관 근무 경력

주제전문사서로 인정할 수 있는 도서관 근무 경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에 알아보았다. ‘4년 이상 ~ 7년 미만’의 경력이 25.81%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10년 이상 ~ 13년 미만’ 22.58%, ‘1년 이상 ~ 4년 미만’ 18.48%, ‘7년 이상 ~ 10년 미만’ 17.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7〉과 같이 관종별로는 공공도서관과 전문도서관의 응답자는 ‘4년 이상 ~ 7년 미만’에 대하여 각각 26.27%, 36.84%의 응답을 보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대학도서관은 ‘10년 이상~13년 미만’이 26.74%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여 대학도서관 사서가 생각하는 주제전문사서의 도서관 근무경력 수준이 다른 관종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7〉 관종별 주제전문사서로 인정 가능한 도서관 근무경력

항목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총계	
	N	%	N	%	N	%	N	%
상관없다	29	13.36	7	8.14	8	21.05	44	12.90
1년 미만	2	0.92	0	0.00	0	0.00	2	0.59
1년 이상 ~ 4년 미만	35	16.13	22	25.58	6	15.79	63	18.48
4년 이상 ~ 7년 미만	57	<b>26.27</b>	17	19.77	14	<b>36.84</b>	88	25.81
7년 이상 ~ 10년 미만	40	18.43	15	17.44	5	13.16	60	17.60
10년 이상 ~ 13년 미만	50	23.04	23	<b>26.74</b>	4	10.53	77	22.58
16년 이상 ~ 19년 미만	1	0.46	0	0.00	0	0.00	1	0.29
19년 이상	3	1.38	2	2.33	1	2.63	6	1.76
전체	217	100.00	86	100.00	38	100.00	341	100.00

라. 주제전문사서로 인정 가능한 주제전문사서 업무 경력

주제전문사서로 인정할 수 있는 주제전문서비스 업무의 수행경력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4년 이상 ~ 7년 미만’의 수행경력이 39.00%로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하였으며, ‘1년 이상 ~ 4년 미만’ 24.63%, ‘7년 이상 ~ 10년 미만’ 12.32%, ‘10년 이상 ~ 13년 미만’ 12.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관종별 분석에서는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 응답자의 41.01%, 대학도서관 응답자의 33.72%, 전문도서관의 39.47%가 ‘4년 이상~7년 미만’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므로 관종에 관계없이 사서들은 주제별 특성화서비스 경력이 ‘4년 이상 ~

7년 미만'이면 주제전문사서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8〉 관종별 주제전문사서로 인정 가능한 주제전문사서 경력

항목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총계	
	N	%	N	%	N	%	N	%
상관없다	22	10.14	8	9.30	4	10.53	34	9.97
1년 미만	0	0.00	0	0.00	1	2.63	1	0.29
1년 이상 ~ 4년 미만	51	23.50	21	24.42	12	31.58	84	24.63
4년 이상 ~ 7년 미만	89	<b>41.01</b>	29	<b>33.72</b>	15	<b>39.47</b>	133	39.00
7년 이상 ~ 10년 미만	29	13.36	10	11.63	3	7.89	42	12.32
10년 이상 ~ 13년 미만	22	10.14	17	19.77	2	5.26	41	12.02
16년 이상 ~ 19년 미만	2	0.92	0	0.00	0	0.00	2	0.59
19년 이상	2	0.92	1	1.16	1	2.63	4	1.17
전체	217	100.00	86	100.00	38	100.00	341	100.00

마. 주제전문사서에 적절한 학력 수준

주제전문사서의 학력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문헌정보학 학사(정사서 2급) + 해당 주제 학사(복수전공 포함)'가 45.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헌정보학 학사(정사서 2급) + 해당 주제 석사 이상' 29.91%, '문헌정보학 석사 이상 + 해당 주제 학사 이상' 9.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관종별로 분석하면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 응답자의 52.07%, 대학도서관 응답자의 37.21%가 '문헌정보학 학사(정사서 2급) + 해당 주제 학사(복수전공 포함)'가 가장 적절하다고 하였고, 전문도서관의 응답자는 '문헌정보학 학사(정사서 2급) + 해당 주제 석사 이상'( 36.84%)이 가장 적절하다고 하였다. 전문도서관 사서가 느끼는 주제전문성의 수준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9〉 관종별 주제전문사서의 학력 수준

항목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총계	
	N	%	N	%	N	%	N	%
문헌정보학 학사(정사서 2급)	15	6.91	9	10.47	4	10.53	28	8.21
문헌정보학 학사(정사서 2급)+해당 주제 학사(복수전공 포함)	113	<b>52.07</b>	32	<b>37.21</b>	9	23.68	154	45.16
문헌정보학 학사(정사서 2급)+해당 주제 석사 이상	58	26.73	30	34.88	14	<b>36.84</b>	102	29.91
문헌정보학 석사 이상+해당 주제 학사 이상	18	8.29	8	9.30	6	15.79	32	9.38
문헌정보학 석사 이상+해당 주제 석사 이상	9	4.15	6	6.98	1	2.63	16	4.69
기타	4	1.84	1	1.16	4	10.53	9	2.64
전체	217	100.00	86	100.00	38	100.00	341	100.00

바. 현직 사서의 주제전문사서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

현직 사서에게 주제전문사서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주제별 특성화서비스(주제전문서비스) 경력과 학위 취득 모두 필요하다'는 의견이 42.82%로 가장 높게 나타나 경력과 학력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주제별 특성화서비스 경력 인정' 33.43%, '해당 주제에 대한 학위 취득' 21.70%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 '전문가 인증제도', '경력 인정 또는 학위 중 선택 적용', '해당 주제와 관련된 사서 교육과정 필요', '주제별 교육과정 개설 후 이수조건', '주제별 특성화서비스(주제전문서비스) 경력과 기존 사서의 추가 교육' 등 소수이지만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관중별 분석 결과는 <표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은 '주제별 특성화서비스(주제전문서비스) 경력 + 학위 취득 모두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42.40%, 47.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전문도서관은 '주제별 특성화서비스(주제전문서비스) 업무 수행경력 인정'이 44.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0> 관중에 따른 현직 사서에게 주제전문사서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

항목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총계	
	N	%	N	%	N	%	N	%
주제별 특성화서비스(주제전문서비스) 업무 수행경력 인정	73	33.64	24	27.91	17	44.74	114	33.43
해당 주제에 대한 학위 취득	50	23.04	18	20.93	6	15.79	74	21.70
주제별 특성화서비스(주제전문서비스) 경력 + 학위 취득 모두 필요	92	42.40	41	47.67	13	34.21	146	42.82
기타	2	0.92	3	3.49	2	5.26	7	2.05
전체	217	100.00	86	100.00	38	100.00	341	100.00

#### 사. 주제전문사서 자격을 갖추기 위한 추가적인 활동 수행 의사

현직 사서가 주제전문사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추가적인 활동이 필요한 경우, 수행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행 의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가적인 활동의 예시에 대하여 그 필요성 여부에 답하도록 하고, 필요한 정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주제전문 관련교육'은 82.91%, '현장에서 일정기간 주제서비스 업무 담당'은 75.77%, '프로그램 진행 관련 기술 교육'은 71.17%, '주제분

<표 21> 주제전문사서 자격을 갖추기 위한 추가적인 활동 수행 의사

항목	전혀 의사가 없다		의사가 없다		보통이다		의사가 있다		매우 의사가 높다		평균	표준 편차
	N	%	N	%	N	%	N	%	N	%		
주제분야 학위 취득	19	4.85	59	15.05	116	29.59	155	39.54	43	10.97	3.37	1.023
주제관련 전문교육	8	2.04	14	3.57	45	11.48	220	56.12	105	26.79	4.02	0.843
현장에서 일정기간 주제서비스 업무 담당	7	1.79	17	4.34	71	18.11	221	56.38	76	19.39	3.87	0.833
프로그램 진행 관련 기술 교육	8	2.04	17	4.34	88	22.45	206	52.55	73	18.62	3.81	0.857

야 학위 취득'은 50.51%가 활동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었고 ('의사가 있다', '의사가 매우 있다'에 응답한 경우), 5점 척도에서도 '주제관련 전문교육'이 4.02점으로 가장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현장에서 일정기간 주제서비스 업무 담당' 3.87점, '프로그램 진행 관련 기술 교육' 3.81점의 순이었다.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5점 척도 점수에서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모두 '주제관련 전문교육에 대한 수행의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현장에서 일정기간 주제별 특성화서비스(주제전문서비스) 업무 담당', '프로그램 진행 관련 기술 교육', '주제분야 학위 취득'의 순서로 나타났다. 전문도서관 재직 응답자가 모든 항목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관중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현장에서 일정기간 주제별 특성화서비스(주제전문서비스) 업무 담당' 항목에서만 관중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p < 0.05$ ), 다른 항목에서의 관중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22> 주제전문사서 자격을 갖추기 위한 추가적인 활동 수행 의사에 대한 관중별 차이분석

항목	N	관중	평균	F	P
주제분야 학위 취득	250	공공도서관	3.30	1.686	.187
	100	대학도서관	3.49		
	42	전문도서관	3.50		
	392	전체	3.92		
주제관련 전문교육	250	공공도서관	3.97	1.883	.154
	100	대학도서관	4.05		
	42	전문도서관	4.24		
	392	전체	4.02		
현장에서 일정기간 주제별 특성화서비스 (주제전문서비스) 업무 담당	250	공공도서관	3.80	4.840	.008
	100	대학도서관	3.92		
	42	전문도서관	4.21		
	392	전체	3.87		
프로그램 진행 관련 기술 교육	250	공공도서관	3.76	2.711	.068
	100	대학도서관	3.82		
	42	전문도서관	4.10		
	392	전체	3.81		

#### 아. 주제전문사서 자격제도의 관리방식

주제전문사서의 자격은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표 23>과 같이 모든 관중을 합하였을 때 '국가공인자격제도로 자격 충족 후 지속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이 48.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가공인자격제도로 주기적인 자격 심사 방식'이 19.90%, '도서관 내 자체 자격 기준을 설정하여 자격 충족 후 지속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14.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서들은 주제전문사서의 국가공인자격제도가 필요한 것으

로 생각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자격심사보다는 자격 충족 후 지속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을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타의견으로 '문헌정보학과 교육과정의 해당 관련 교과목 필수 이수', '지속적인 재교육', '연수 후 재이수' 등의 지속적인 관리체계 필요 등의 의견이 있었다.

<표 23> 주제전문사서의 자격 관리 방식

항목	N	%	관중			
				N	%	
국가공인자격제도 - 자격 충족 후 지속적으로 인정	190	48.47	공공도서관	122	64.21	100
			대학도서관	50	26.32	
			전문도서관	18	9.47	
국가공인자격제도 - 주기적인 자격 심사	78	19.90	공공도서관	62	79.49	100
			대학도서관	9	11.54	
			전문도서관	7	8.97	
도서관 내 자체 자격 기준 설정 - 자격 충족 후 지속적으로 인정	58	14.80	공공도서관	30	51.72	100
			대학도서관	21	36.21	
			전문도서관	7	12.07	
도서관 내 자체 자격 기준 설정 - 주기적인 자격 심사 실시	36	9.18	공공도서관	17	47.22	100
			대학도서관	14	38.89	
			전문도서관	5	13.89	
민간자격제도 - 자격 충족 후 지속적으로 인정	11	2.80	공공도서관	7	63.64	100
			대학도서관	2	18.18	
			전문도서관	2	18.18	
기타	10	2.55	공공도서관	8	80.00	100
			대학도서관	1	10.00	
			전문도서관	1	10.00	
민간자격제도 - 주기적인 자격 심사 실시	9	2.30	공공도서관	4	44.45	100
			대학도서관	3	33.33	
			전문도서관	2	22.22	
전체	392	100.00				

자. 주제전문사서 역량 구비를 위한 대학 및 대학원의 교육방식

주제전문사서의 역량을 구비하기 위하여 대학 및 대학원에서 예비 주제전문사서 교육을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업 후, 재교육으로 충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3.8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의 교육과정에 특정 주제에 대한 지식배경과 정보원 등을 교육할 수 있는 교과목을 편성하여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한다'는 의견이 3.85점, '다전공(복수전공)을 필수 이수하도록 한다'는 의견이 3.73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제전문사서의 역량을 구비하기 위한 교육 방식에 대하여 관중별로 응답자의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항목별로 더 우세한 관중이 있기는 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모든 항목에서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4> 주제전문사서의 역량 구비를 위한 대학 및 대학원의 교육방식

항목	전혀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보통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평균	표준 편차
	N	%	N	%	N	%	N	%	N	%		
취업 후, 재교육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0	0	4	5.1	13	16.7	41	52.6	20	25.6	<b>3.87</b>	.802
현재의 교육과정에 특정 주제에 대한 지식배경과 정보원 등을 교육할 수 있는 교과목을 편성하여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한다	0	0	4	5.1	14	17.9	44	56.4	16	20.5	3.85	.903
다전공(복수전공)을 필수 이수하도록 한다	2	2.6	2	2.6	18	23.1	43	55.1	13	16.7	3.73	.851
재학 중 관련기관의 현장 실습과 인턴십을 필수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1	1.1	5	6.4	20	25.6	43	55.1	9	11.5	3.57	.908
특정주제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도록 한다	1	1.3	7	9.0	31	39.7	23	29.5	16	20.5	3.37	.931

<표 25> 주제전문사서 역량 구비를 위한 대학 및 대학원의 교육 방식에 대한 관종별 차이분석

항목	N	관종	평균	F	P
5취업 후, 재교육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250	공공도서관	3.88	.566	.568
	100	대학도서관	3.82		
	42	전문도서관	3.98		
	392	전체	3.87		
1현재의 교육과정에 특정 주제에 대한 지식배경과 정보원 등을 교육할 수 있는 교과목을 편성하여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한다.	250	공공도서관	3.89	1.374	.254
	100	대학도서관	3.85		
	42	전문도서관	3.64		
	392	전체	3.85		
2다전공(복수전공)을 필수 이수하도록 한다.	250	공공도서관	3.73	.096	.908
	100	대학도서관	3.72		
	42	전문도서관	3.79		
	392	전체	3.73		
4재학 중 관련 기관의 현장 실습과 인턴십을 필수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250	공공도서관	3.61	1.155	.316
	100	대학도서관	3.55		
	42	전문도서관	3.38		
	392	전체	3.57		
3특정 주제에 대한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도록 한다.	250	공공도서관	3.36	.591	.554
	100	대학도서관	3.44		
	42	전문도서관	3.26		
	392	전체	3.37		

차. 주제전문사서에게 필요한 역량

주제전문사서에게 필요한 역량 질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주제분야 지식'이 4.5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원 이해' 4.39점, '정보활용기술' 4.29점, '커뮤니케이션 기술' 4.28점, '데이터 큐레이팅 능력' 4.24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해당 주제분야의 자료 수집 및 선별 능력', '정보검색 능력' 등의 의견이 있었다.

<표 26> 주제전문사서에게 필요한 역량

항목	전혀 의사가 없다		의사가 없다		보통이다		의사가 있다		매우 의사가 높다		평균	표준 편차
	N	%	N	%	N	%	N	%	N	%		
도서관 업무 기술	3	0.77	0	0.00	53	13.52	225	57.40	111	28.32	4.13	0.688
해당 주제분야 지식	1	0.26	1	0.26	15	3.83	140	35.71	235	59.95	4.55	0.609
커뮤니케이션 기술	1	0.26	0	0.00	36	9.18	206	52.55	149	38.01	4.28	0.646
언어 능력	1	0.26	3	0.77	58	14.80	227	57.91	103	26.28	4.09	0.676
정보활용기술	1	0.26	2	0.51	34	8.67	199	50.77	156	39.80	4.29	0.666
정보원 이해	1	0.26	1	0.26	24	6.12	185	47.19	181	46.17	4.39	0.638
콘텐츠 기획·개발·운영 능력	4	1.02	14	3.57	100	25.51	189	48.21	85	21.68	3.86	0.830
콘텐츠 홍보·마케팅 능력	5	1.28	17	4.34	107	27.30	190	48.47	73	18.62	3.79	0.839
데이터 큐레이팅 능력	2	0.51	5	1.28	44	11.22	189	48.21	152	38.78	4.24	0.737

관중에 따라 주제전문사서에게 필요한 역량에 대해 분석한 결과, <표 27>과 같이 공공도서관의 사서들은 ‘해당 주제분야 지식’이 평균 4.5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원 이해’ 4.37점, ‘커뮤니케이션 기술’ 4.28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도서관의 응답자들은 ‘해당 주제분야 지식’ 4.60점, ‘정보원 이해’ 4.38점, ‘데이터 큐레이팅 능력’ 4.36점 등의 순으로,

<표 27> 본인이 갖춘 주제전문사서 역량에 대한 관종별 차이분석

항목	N	관종	평균	F	P
도서관 업무 기술	250	공공도서관	3.70	2.722	.067
	100	대학도서관	3.71		
	42	전문도서관	4.00		
	392	전체	3.73		
해당 주제분야 지식	250	공공도서관	3.02	3.461	.032
	100	대학도서관	3.27		
	42	전문도서관	3.24		
	392	전체	3.11		
커뮤니케이션 기술	250	공공도서관	3.46	4.367	.013
	100	대학도서관	3.65		
	42	전문도서관	3.79		
	392	전체	3.54		
언어 능력	250	공공도서관	3.31	.449	.639
	100	대학도서관	3.38		
	42	전문도서관	3.40		
	392	전체	3.34		
정보활용기술	250	공공도서관	3.33	9.990	.000
	100	대학도서관	3.62		
	42	전문도서관	3.79		
	392	전체	3.45		
정보원 이해	250	공공도서관	3.29	11.479	.000
	100	대학도서관	3.59		
	42	전문도서관	3.83		
	392	전체	3.43		

2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8권 제4호)

콘텐츠 기획·개발·운영 능력	250	공공도서관	3.08	3.642	.027
	100	대학도서관	3.27		
	42	전문도서관	3.40		
	392	전체	3.16		
콘텐츠 홍보·마케팅 능력	250	공공도서관	3.09	2.957	.053
	100	대학도서관	3.33		
	42	전문도서관	3.21		
	392	전체	3.16		
데이터 큐레이팅 능력	250	공공도서관	3.06	4.400	.013
	100	대학도서관	3.25		
	42	전문도서관	3.43		
	392	전체	3.15		

전문도서관의 경우에는 ‘정보원 이해’ 4.52점, ‘해당 주제분야 지식’ 4.45점, ‘정보활용기술’ 4.4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의 사서들은 ‘해당 주제분야 지식’이 가장 필요한 역량이라고 보았으나 전문도서관의 사서들은 ‘정보원의 이해’가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여기는 듯 하다. 그러나 이러한 관중별 차이는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 본인의 주제전문사서 역량 구비 정도

본인이 갖춘 주제전문사서로서의 역량에 대해 분석한 결과, <표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서관 업무 기술’이 3.7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3.54점, ‘정보활용 기술’ 3.45점, ‘정보원 이해’ 3.43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주제분야 지식’은 가장 낮은 3.11점으로 나타나 사서들이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역량은 ‘해당 주제분야 지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평가하였으나 동시에 가장 부족한 역량으로 생각하고 있다.

관중에 따라 본인이 갖춘 주제전문사서로서의 역량에 대해 분석한 결과, <표 29>과 같이

<표 28> 본인이 갖춘 주제전문사서로서의 역량

항목	전혀 의사가 없다		의사가 없다		보통이다		의사가 있다		매우 의사가 높다		평균	표준 편차
	N	%	N	%	N	%	N	%	N	%		
도서관 업무 기술	3	0.77	16	4.08	120	30.61	196	50.00	57	14.54	3.73	0.784
해당 주제분야 지식	13	3.32	71	18.11	191	48.72	95	24.24	22	5.61	3.11	0.878
커뮤니케이션 기술	4	1.02	23	5.87	159	40.56	168	42.86	38	9.69	3.54	0.789
언어 능력	5	1.28	39	9.95	197	50.26	121	30.87	30	7.65	3.34	0.808
정보활용기술	3	0.77	27	6.89	180	45.92	153	39.03	29	7.40	3.45	0.762
정보원 이해	4	1.02	32	8.16	184	46.94	137	34.95	35	8.93	3.43	0.806
콘텐츠 기획·개발·운영 능력	10	2.55	67	17.09	185	47.19	109	27.81	21	5.36	3.16	0.861
콘텐츠 홍보·마케팅 능력	13	3.32	55	14.03	202	51.53	99	25.26	23	5.87	3.16	0.858
데이터 큐레이팅 능력	9	2.30	64	16.33	200	51.02	97	24.75	22	5.61	3.15	0.840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의 응답자들은 ‘도서관 업무 기술’, ‘커뮤니케이션 기술’, ‘정보활용기술’의 순으로 역량을 갖추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전문도서관의 사서들은 ‘도서관 업무 기술’, ‘정보원 이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순으로 역량을 갖춘 것으로 스스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관종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를 실시한 결과, ‘해당 주제분야 지식’, ‘커뮤니케이션 기술’, ‘정보활용기술’, ‘정보원의 이해’, ‘콘텐츠 기획·개발·운영 능력’, ‘데이터 큐레이팅 능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주제전문사서에게 필요한 역량에 대한 관종별 차이분석

항목	N	관종	평균	F	P
도서관 업무 기술	250	공공도서관	4.15	.910	.403
	100	대학도서관	4.11		
	42	전문도서관	4.00		
	392	전체	4.13		
해당 주제분야 지식	250	공공도서관	4.54	.887	.413
	100	대학도서관	4.60		
	42	전문도서관	4.45		
	392	전체	4.55		
커뮤니케이션 기술	250	공공도서관	4.28	.018	.982
	100	대학도서관	4.27		
	42	전문도서관	4.29		
	392	전체	4.28		
언어 능력	250	공공도서관	4.10	.151	.860
	100	대학도서관	4.06		
	42	전문도서관	4.10		
	392	전체	4.09		
정보활용기술	250	공공도서관	4.27	.721	.487
	100	대학도서관	4.30		
	42	전문도서관	4.40		
	392	전체	4.29		
정보원 이해	250	공공도서관	4.37	1.083	.339
	100	대학도서관	4.38		
	42	전문도서관	4.52		
	392	전체	4.39		
콘텐츠 기획·개발·운영 능력	250	공공도서관	3.86	.045	.956
	100	대학도서관	3.84		
	42	전문도서관	3.88		
	392	전체	3.86		
콘텐츠 홍보·마케팅 능력	250	공공도서관	3.78	.149	.862
	100	대학도서관	3.82		
	42	전문도서관	3.74		
	392	전체	3.79		
데이터 큐레이팅 능력	250	공공도서관	4.18	2.355	.096
	100	대학도서관	4.36		
	42	전문도서관	4.29		
	392	전체	4.23		

타. 주제전문사서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내용

주제전문사서 양성을 위해 대학 교육과정 내에서 어떠한 내용이 추가되거나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표 30>과 같이 ‘주제별 전문사서 관련 교육’이 4.2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와 정보원 교육’ 4.14점, ‘정보기술 관련 교육’ 3.99점, ‘도서관과 커뮤니케이션’ 3.97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 ‘세세하게 특정 주제별로 기본지식을 지속적으로 쌓을 수 있는 과목이 필요하다’, ‘현장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 ‘국가고시제도 고려해야 한다’, ‘이용자 연구 교육이 필요하다’, ‘해당 주제에 대한 연계과정 필요, 정보활용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표 30> 주제전문사서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내용

항목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평균	표준 편차
	N	%	N	%	N	%	N	%	N	%		
문헌정보 시스템운영 교육	5	1.28	20	5.10	136	34.69	183	46.68	48	12.25	3.64	0.810
주제별 전문사서 관련 교육	7	1.79	1	0.26	34	8.67	202	51.53	148	37.76	4.23	0.763
도서관과 커뮤니케이션	4	1.02	3	0.77	80	20.41	218	55.61	87	22.19	3.97	0.741
정보기술 관련 교육	2	0.51	1	0.26	74	18.88	238	60.71	77	19.64	3.99	0.665
정보와 정보원 교육	1	0.26	2	0.51	49	12.50	230	58.67	110	28.06	4.14	0.657
도서관 홍보·기획·마케팅·평가	5	1.28	14	3.57	103	26.28	195	49.75	75	19.13	3.82	0.825

관종별로 세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어 교육의 추가 및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의 응답자는 ‘주제별 전문사서 관련 교육’의 평균이 4.2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와 정보원’ 4.11점, ‘도서관과 커뮤니케이션’ 4.0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도서관은 ‘주제별 전문사서 관련 교육’의 평균이 4.23점, ‘정보와 정보원’ 4.19점, ‘정보기술 관련 교육’ 4.03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도서관은 ‘정보와 정보원’의 평균이 4.19점, ‘주제별 전문사서 관련 교육’과 ‘정보기술 관련 교육’이 각각 4.00점, 도서관 커뮤니케이션 3.88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종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파. 특성화서비스 및 주제전문사서를 위한 가이드라인, 정책서, 법적제도화의 필요성

주제별 특성화서비스 및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책서,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표 32>와 같이 70.6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9.18%만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표 31〉 본인이 갖춘 주제전문사서 역량에 대한 관종별 차이분석

항목	N	관종	평균	F	P
문헌정보 시스템운영 교육	250	공공도서관	3.63	.006	.994
	100	대학도서관	3.64		
	42	전문도서관	3.64		
	392	전체	3.64		
주제별 전문사서 관련 교육	250	공공도서관	4.27	2.298	.102
	100	대학도서관	4.23		
	42	전문도서관	4.00		
	392	전체	4.23		
도서관과 커뮤니케이션	250	공공도서관	4.00	.491	.612
	100	대학도서관	3.95		
	42	전문도서관	3.88		
	392	전체	3.97		
정보기술 관련 교육	250	공공도서관	3.97	.318	.728
	100	대학도서관	4.03		
	42	전문도서관	4.00		
	392	전체	3.99		
정보와 정보원	250	공공도서관	4.11	.708	.493
	100	대학도서관	4.19		
	42	전문도서관	4.19		
	392	전체	4.14		
도서관 홍보·기획·마케팅·평가	250	공공도서관	3.84	.586	.555
	100	대학도서관	3.82		
	42	전문도서관	3.69		
	392	전체	3.82		

〈표 32〉 특성화서비스 및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책서 등 필요 여부

항목	N	%	평균	표준편차
전혀 필요하지 않다	8	2.04	3.74	0.866
필요하지 않다	28	7.14		
보통이다	79	20.15		
필요하다	220	56.12		
매우 필요하다	57	14.54		
전체	392	100.00		

〈표 33〉 관종별 특성화서비스 및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필요 여부

항목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총계	
	N	%	N	%	N	%	N	%
전혀 필요하지 않다	3	1.20	3	3.00	2	4.76	8	2.04
필요하지 않다	18	7.20	8	8.00	2	4.76	28	7.14
보통이다	50	20.00	20	20.00	9	21.43	79	20.15
필요하다	143	57.20	56	56.00	21	50.00	220	56.12
매우 필요하다	36	14.40	13	13.00	8	19.05	57	14.54
전체	250	100.00	100	100.00	42	100.00	392	100.00

관중에 따라 주제별 특성화서비스 및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책서,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표 33>과 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공도서관의 경우 71.60%, 대학도서관은 69.00%, 전문도서관은 69.05%로 나타나 관중에 관계없이 특성화도서관/주제별 특성화서비스(주제전문서비스) 및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책서,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V. 결론 및 제언

현장의 사서를 대상으로 도서관의 특성화서비스 및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인식, 주제전문사서의 자격제도 및 양성 방법 등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체로 주제별 특성화서비스의 제공 비율, 주제전문사서의 배치 비율 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중별로 보았을 때 전문도서관의 경우는 도서관의 관중별 특성상 대학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보다 특성화서비스 제공과 전문사서 배치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대학도서관 역시 전통적인 학술 연구 지원을 위한 주제전문서비스가 대학도서관의 보편적 서비스이므로 그런 특성이 반영되어 공공도서관보다 상황이 여유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공도서관의 경우, 모든 면에서 미흡하거나 열악하였다. 이전보다 전문화된 정보요구가 공공도서관으로 요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은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주제별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수반되는 어려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주제전문지식의 부족’으로 나타났다. 모든 관중의 응답자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생각하였으나 그 응답 비율에서 보면 전문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은 서비스의 장애요소가 될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할 과제로 생각된다. 대학도서관이나 전문도서관은 예상 가능한 주제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준비할 수 있지만,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정보 요청의 수준은 보편적이라 할지라도 잠재적으로는 학문의 전주체 그리고 일반인들의 모든 관심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재정적으로 인력적으로 가장 열악하면서 동시에 정보요구에 대한 예측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사서들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요소로 지적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셋째, 공공도서관의 특성화서비스 제공 필요성에 대한 의견에서 모든 관중의 응답자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 이유로는 전문인력의 부재, 아직은 소규모에 불과한 이용자 요구, 환경여건의 불충분 등을 들고 있었는데, 이것은 서비스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필요성에 대한

불인정이 아니라 현실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서들은 주제 특성화 서비스를 담당할 의사에 있어서 비교적 높은 긍정의 응답을 하였다. 도서관계의 동향을 잘 읽고 있으며, 현실적인 장벽들을 제거하거나 개선해 주면 긍정적으로 서비스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사서들은 주제별 특성화서비스 제공 시 스스로의 주제전문지식이 부족하다고 자각하고 있다. 전문도서관 사서의 경우만 그 정도가 약할 뿐 모든 관중에 있어서 주제전문지식이 가장 중요하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역량으로 여기고 있다. 스스로 부족한 점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건만 제대로 마련해 주면 능동적으로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섯째, 사서들은 주제전문사서 자격제도 및 자격요건이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요건의 요체는 경력과 학력이며, 경력에 있어서는 4년 이상 ~7년 미만을 적정한 것으로 학력에 있어서는 학사 이상의 주제분야 학위를 적절히 갖춘 것으로 보였다. 관중별로 재분석하면 대학도서관 사서들은 경력에 있어서 10년 이상, 전문도서관의 사서들은 주제 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을 요건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공공도서관보다 전문성에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격제도는 국가공인자격제도로 관리되어야 하고, 한번 취득한 자격은 지속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타 의견을 통해 볼 때, 국가고시, 전문기관의 인정 등 보다 강력한 추가 요건을 내세우기도 하고 있다.

여섯째, 사서들은 주제별 특성화서비스 및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책서,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높은 비율로 긍정하였다. 다른 설문 응답의 결과와 종합해서 볼 때, 많은 어려움과 제약이 있음을 사서들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주제전문사서가 되기 위한 노력이나 특성화서비스에 필요한 요건들을 갖추는데 있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론적인 난제들이 주제 특성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제전문사서를 양성하는데 영향을 주지만 근본적으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제도를 정비하고 체계화 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결과와 논의점을 바탕으로 향후 후속연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주제전문사서의 자격제도를 확립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동안 학계에서 많은 제안이 있었고, 최근에는 사서들에 대한 실태 조사 등 현실적인 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에 추가하여 문헌정보학과 도서관계 뿐만 아니라 주제 전문분야의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필요한 주제전문성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여 충분한 역량을 갖춘 주제전문사서를 양성,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공공도서관의 특성화서비스는 잠재적으로는 모든 주제에 대한 요구에 대응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공공도서관의 정보자원과 인적자원 그리고 시설자원 등을 고려할 때 모든 도서관이 모든 주제에 대비할 수는 없다. 지역적 강점과 서비스의 강점을 강화하여 다른 도서

관과 배타성 있는 주제 역량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서관의 규모와 현황에 따라 특성화 영역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보편적으로는 특성화서비스를 제공하고, 특정적으로는 특화 주제도서관으로 기능할 수 있는 방안들이 구체화될 수 있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곽승진, 노영희, 김동석. 2015. 이용자맞춤형정책정보서비스 수요분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2): 75-109.
- 김세훈. 2003. 『도서관 전문성 강화방안 : 사서 전문성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노영희. 2009. 대학도서관의 규모별 주제전문사서체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1): 101-117.
- 심원식. 2009. 주제전담사서 양성을 위한 사서 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1): 541-560.
- 안인자 외. 2008. 국내 주제전문사서의 직무분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4): 533-549.
- 안인자 외. 2009. 주제전문사서를 위한 능력중심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1): 333-361.
- 오의경. 2016. 주제전문사서와 주제전문서비스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1): 437-456.
- 윤영대. 2003. 의학사서직의 교육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1): 131-146.
- 윤희윤. 2005. 한국 사서직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3): 45-73.
- 이용재. 1998. 현단계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서의 주제사서제 활용 방안. 『도서관학논집』, 29: 273-311.
- 정동열. 2002. 지식기반시대 대학도서관의 주제전문화 역할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3): 5-23.
- 정재영. 2007. 주제전문사서 양성을 위한 협력모형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1): 391-409.
- 정재영. 2009. 대학도서관의 주제전문사서제 운영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3): 119-136.
- 최홍식. 2012. 대학도서관의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이용자 인식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1): 303-319.

- 한상완. 1986. 『한국의 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에 있어서 주제전문사서의 기능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도서관학과.
- Biddiscombe, Richard. 2002 “Learning Support Professionals : The Changing Role of Subject Speciallists in UK Academic Libraries.” *Program Electronic Library and Information Systems*, 36(4): 228–235.
- Feldman, L. 2006. “Subject Librarians in the Changing Academic Library.” *Electronic Journal of Academic and Special Librarianship*, 7(3).
- Graham, John–Bauer and Sonja L. McAbee. 2005. “Expectations, Realities, and Perceptions of Subject Specialist Librarians' Duties in Medium–Sized Academic Libraries.”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31(1): 19–28.
- Pinfield, Stephen. 2001. “The Changing Role of Subject Librarians in an Academic Library.”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33(1): 32–38.
- White, G. W. 1999. “Academic subject specialist positions in the United States: A content analysis of announcements from 1990 through 1998.”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25(5): 372–382.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hn, In–Ja et al. 2008. “A Study on the Job Analysis of the Subject Specialist Librarian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2(4): 533–549.
- Ahn, In–Ja et al. 2009. “Competency Based Curriculum Development of Subject Specialist Libraria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1): 333–361.
- Choi, Hung–Sik. 2012. “A Study of Reconsideration for Users in the Subject–Special Librarians of the University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1): 303–319.
- Chung, Jae–Young. 2007. “A Study on the Cooperation Model of Subject Specialist Upbringing Plan : Focusing on the Role of the Subjects Related to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1(1): 391–409.
- Chung, Jae–Young. 2009. “A Study on Operational Plan of Subject Specialist Librarian

- at Academic Libraries : Focus on Case Analysis of Three Academ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3): 119–136.
- Han, Sang–Wan. 1986. *Functional Study of Subject Librarians in Korea's University Library Information Service*. Ph. D. diss.,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Library.
- Jeong, Dong–Youl. 2002. “A Study on the Role Model of Subject Specialization in Academ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6(3): 5–23.
- Kim, Se–Hun. 2004. *Strengthening Library Expertise : Focusing on librarian expertise*. Seoul: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Kwak, Seung–Jin, Younghee Noh and Dong–Seok Kim. 2015. “A Study on Need Analysis for User–Customized Policy Information Servic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9(2): 75–109.
- Lee, Yong–Jae. 1998. “Introducing the ‘Subject Librarian System’ into the University Libraries in Korea in their Present Developmental Stag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9: 273–311.
- Noh, Young–Hee. 2009. “A Study on How to Introduce Subject–Oriented Service to University Libraries Based on Their Size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Bibliography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1): 101–117.
- Oh, Eui–Kyung. 2016. “A Study on Improving Perception of Subject–Special Librarian and Subject–Special Servic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0(1): 437–456.
- Shim, Wonsik. 2009. “Curriculum Development of Training Librarians for Subject Liaison Servi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1): 541–560.
- Yoon, Hee–Yoon. 2005. “A Study on the Improving Personnel System of Librarianship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9(3): 45–73.
- Yoon, Yung–Dai. 2003. “A Study of Education for Medical Librarianship.”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4(1): 131–146.